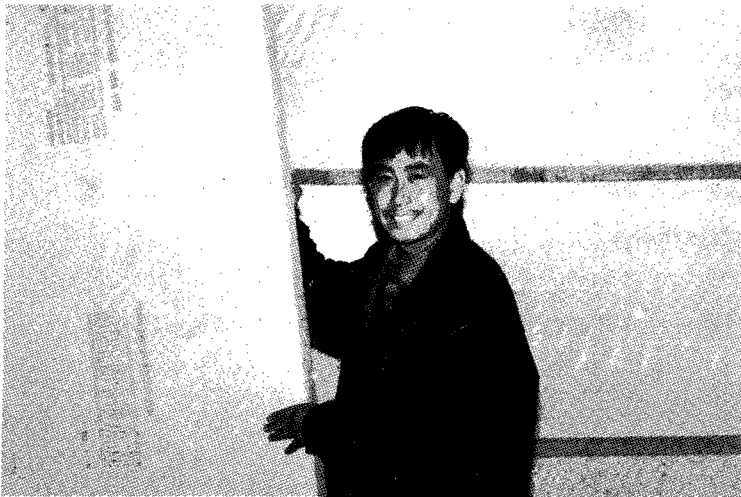


신속한 공법을 바탕으로 특수재 질에 의한 단열에 중점을...

□ 취재/김동진 기자



△ 단열성이 높은 골드폼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김장수 사장

답에 있어서 이상적인 사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닭의 우수한 능력, 충분한 영양소 공급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계사설계는 자연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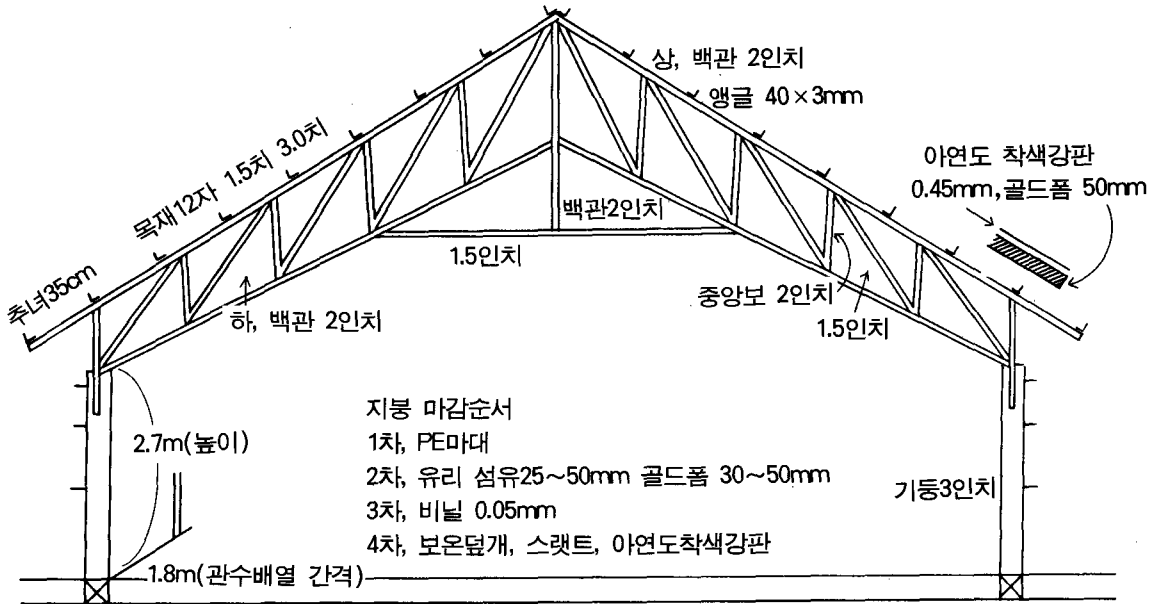
경으로 부터의 보호가 아닌 계사내 환경과 관리이용면을 고려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계사가 대형화, 성력화를 요구하는 추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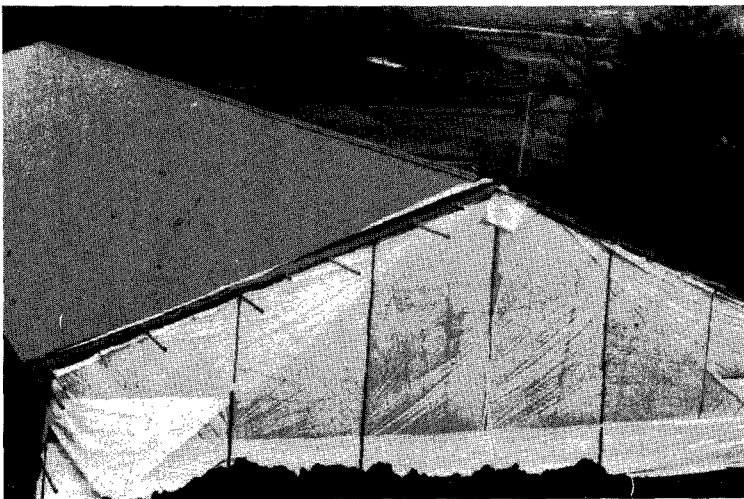
서 외국 기술이 국내에 확산,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선 국내 시공업체들은 다양한 형태의 계사 모형을 국내에 맞게 선보이면서 튼튼하면서도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계사를 농가에 보급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72년 부산에서 파이프 대리점을 경영하던 김장수 사장은 건축에 흥미를 느끼면서 '82년부터 본격적인 축사 시공에 기술을 투여하기 시작하면서 충남 천안에 500평규모의 대흥산업을 세우게 됐다.

'82년에는 원형하우스, '84년에는 2중갓쇼형, '85년



〈그림1〉 보계농장에 시공된 파이프형 이중 갓쇼의 기본도



△모델하우스로 지정된 20×76m² 규모의 이중갓쇼형 계사의 신축장면

에는 산뜻하고 단열성이 우수한 세미모니터형을 전국 각지에 보급하였으며, 최근

에는 C형강 H빔 트라스 공법을 농장에 활용하는 등 국내여건에 맞는 계사를 시

공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6인의 인부가 400평규모의 계사를 8일만에 완성시킬 수 있는 빠른 공법과 기술을 바탕으로 갈바륨과 골드폼이라는 특수한 재질을 이용하여 단열에 중점을 둔다는게 대홍산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갈바륨 강판은 알루미늄+아연(Al+Zn)합금으로 일반 아연판 보다 내식성(耐蝕性)이 3~6배 정도 강하여 계분가스에 강한 성질을 보인다. 골드폼은 독일과 기술

제휴한 제품으로 서울 플라스틱에서 특수제작하여 단열성이 큰 만큼 단가가 높다는 면도 있지만 불에 강하고 설치류에 의한 손상도 막을 수 있고 유리섬유가 시공시 따가운 반면 시공에 불편한 단점을 보완한 특징이 있다.

대흥산업에서 설계하는 계사는 평당 9만원의 시공비가 드는데 소규모의 계사에서 부터 20×76m²의 계사까지도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다.

처음에는 관수배열, 하중 문제 등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은 완벽한 공법에 의해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재의 이동부터 시공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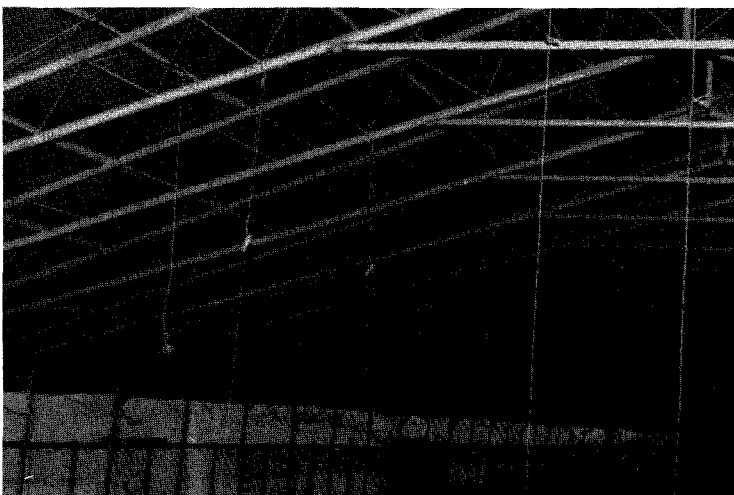
△3.6×3.6m²의 롤러문을 통해 차가 드나들 수 있게끔 지어졌다.

이르기까지 김사장의 솔선

수범이 대흥산업을 키워온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안성에 위치한 보계농장을 모델하우스로 지정하여 현재 20×76m²를 완성한 단계이고 아래쪽에 26×70m²의 C형강(75×45) H빔(250×150, 6×9) 트라스공법에 골드폼과 아연도 착색강판을 부착한 계사를 올 3월에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보계농장(육계)의 이중각 소형 기본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그림1과 같은데 1.




△갓쇼형으로 지어진 농장전망, 실내가 넓고 쾌적하다.

5, 2, 3인치 등의 파이프를 기본 골격을 튼튼하게 완성한 후 그위에 골드폼과 아연도 착색강판을 한 것이 특징으로 내부가 넓고 시원하게 보이며 출입문의 경우 3.6×3.6㎡의 롤러문을 설치하여 차가드나들 수 있으며 양옆에 관리인이 활용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배려하고 있다.

또 양벽면은 원치커텐을 상향식(밖)과 하향식(안)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며 내부는 원치커텐에 의해 3부분으로 나누어 관리를 할 수 있는 특성도 갖추고 있다.

대홍산업은 앞으로 공장을 이전, 확장시킬 예정인데 법인체로 공장을 허가 받게 되면 충분한 인력과 기술을 투자하여 외국 시공업체들을 능가하는 축사시공업체로의 발돋움을 꿈꾸고 있다. 



노계전량수매

2000년대의 양계산업 발전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먼저 유통구조개선입니다. 양계유통구조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백송양계유통이 탄생했습니다. 양계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백송양계종합유통센터

대표: 이 부 남



전 화 : (0339) 52-5781
 FAX : (0331) 42-3098
 전 화 : (0331) 42-3098
 뽀 뽀 : 012-225-0372